

4 복음의 진리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다룬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덩달아 일어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 했었던 바나바까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게바여, 바나바여 어떻게 그럴수 있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장애물을 파괴하는 자유의 역사인데, 당신이 비난 받을까 두려워 어떻게 이 축복의 공동체를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나누었던 '친교의 악수'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갈2:9)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 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갈2:11-13)

놀랍게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야고보, 그리고 자신과 함께 안디옥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바나바, 이들의 이름을 다 열거합니다. 이들은 여기서 칭찬하는 사람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인물,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로 기록됩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면서까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사건에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겠다고 선

5 막힌 답을 하나로

언합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갈2:14)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다는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보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막힌 답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 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엡2:14-16)

안디옥 사건은 당시, 온 세계의 교회에 상징적 사건이 됩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이방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복음을 떠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안디옥교회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 교육을 한 것입니다.

[최진영 목사]

www.weppc.net 홈페이지에서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강해(6)

Galatians 2:11-14

지난주 수요성경강해 2022년 8월 10일 (수)

파사데나장로교회



1 안디옥 사건

우리가 읽는 성경이 표미가 있는 이유는, 성경은 경전이지만 인간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데 있습니다. 신앙의 영웅들이라고 해서 그 영웅의 좋은 면들만 찾아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내면의 어두운 그릇자, 상처, 실수들을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구약의 최고의 영웅인 다윗, 솔로몬, 노아, 야곱의 실수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걸 영웅들의 과오를 통해서 우리는 성서의 영웅이 자기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만들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게바)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의 하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베드로, 즉 게바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는 안디옥교회에 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게바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게바도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 식탁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곳은 신앙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이어 받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강경파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훨씬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때는 야고보가 훨씬 영적, 행정적 권한이 강했습니다.) 아마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세계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교회가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지켜보던 일종의 종교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안디옥 교회의 식탁 공동체에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옆에 게바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내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게바는 왜 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미 이방 사람들과 식탁을 마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도저히 유대인으로서 먹지 못할 더럽고 가증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정결법 안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장면입니다. (새번역, 행 10:11-17)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코넬리우스)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나는 자유함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10:34-35)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함께 많은 유대인들도 이방 사람들에게 성경을 내림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될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선물로 부어 주신 사실에 놀랐다." (행10:44-45)

3 베드로의 실수

고넬료와의 만남은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될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오'하고 그를 나무랐다." (행11: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식탁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설득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민족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다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승인은 했지만, 그들 자신은 이방인과 식탁을 가까이하는 것을 불결하고 죄 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 어떤 무언의 압박을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여, 당신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모습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소. 당신이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함으로써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뿐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가 막히고 있소.'

이런 연유로,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에도,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 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같이 식사 하던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슬금 슬금 다른 자리로